

문법 영역 평가 문항의 오류 실태 및 개선 방안*

윤천탁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머리말

국어과의 문법 영역 평가의 주요한 목적은 학생들이 문법에 관하여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 태도 등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문법 영역과 관련한 핵심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가 고루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형우(2011)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문법 영역이 수행 평가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교사들의 인식이 작용하여 문법 영역에 대한 제대로 된 수행 평가가 실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행 평가를 내실화해서 시행하는 것과 함께, 지필 평가가 수행 평가의 미비한 부분을 만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본관(2010)에서는 문법 영역의 평가는 문법 능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문법 능력은 지식 능력, 탐구 능력, 활용 능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문법 능력 측정을 위한 문항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 이 원고는 한국문법교육학회 제29차 전국 학술 대회(2018. 8. 10.)에서 발표한 '각종 시험과 교재의 문법 관련 평가 문항의 오류 분석'을 수정한 것이다.

다양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필 평가를 시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교사들은 평가 문항 개발과 관련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늘 노력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평가 문항과 관련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오류 없는 문항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문항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을 돕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평가 문항의 출제자인 교사들은 자신이 낸 문항이 평가 요소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적당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시험 범위 내에서 문항이 출제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고 살펴겠지만, 무엇보다도 문항상 오류가 없는지를 가장 많이 점검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복수 정답을 인정하거나 전원 정답으로 처리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고 그렇게 되면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출제자의 전문성이 의심받거나 출제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출제하는 문항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출제와 검토를 하는 데도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오류는 학교 단위 시험에서 생길 뿐만 아니라 시도 단위나 전국 단위 시험에서도 생길 수 있고 학생들이 학습 자료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교재에 실린 문항에서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오류는 여러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출제진 측면과 출제 근거 자료 측면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출제진이란 용어를 쓰는 이유는 보통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 한 개인이 출제하기보다는 여러 명의 출제진과 검토진이 문항을 출제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이다.

여러 유형의 시험에 포함된 문항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개인의 역량이 한계가 있어서 연구자가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고3 전국연합학력

평가나 수능 모의평가, 본수능 문항,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문항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전국의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 연계 교재에 출제된 문항 중 몇 개를 언급하고자 한다.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출제한 문항의 오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문항 오류가 생기는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공개적으로 알려진 자료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언급되는 문항 중에는 실제 그렇게 출제되어 오류가 인정된 문항뿐만 아니라 오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다르게 출제됐다면 오류가 인정될 수도 있었던 문항, 오류 발생 전에 수정이 되었지만 하마터면 오류가 생겼을지도 모르는 문항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문항상 오류는 아니지만 해설에 적힌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했던 문항도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출제진과 출제 근거 자료 측면에서 오류가 생기는 원인을 정리해 보고 교사들이 문항 출제 시 오류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2. 평가 문항 오류 발생의 원인

2.1. 출제진 측면의 오류 발생 원인

2.1.1. 출제진의 오개념이나 착각

출제하는 문항과 관련하여 출제진이 오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잘못 작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출제 과정에서 수정되지 못하거나 교재 집필 과정에서 수정되지 못하면 문항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아래의 경우는 2019년도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화법·작문·문법)》 교재에 제시된 정답 해설 내용 중 오류를 인정한 사례이다.

그림 1 《2019 수능특강(화법·작문·문법)》 210쪽의 5번 문항

8003-0154

05 <보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로마자를 쓰시오.

(보기)

-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또, ‘ㄹ’은 모음 앞에서는 ‘l’,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되, ‘ㄹ’은 ‘ll’로 적는다.
-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오는 경우에는 ‘ㅎ’을 밝혀 ‘h’로 적는다.

(1) 덕수궁 → Deo(㉠)su(㉡)ung
 (2) 신라 → Sil(㉢)a
 (3) 집현전 → Ji(㉣)(㉤)yeonjeon

위 문항에 대한 정답 해설과 이 해설 내용 중 오류를 인정하여 수정한 것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오류로 지적된 내용	오류 수정 후 내용
(1) ‘덕수궁’에서 ‘덕’의 ‘ㄱ’은 어말에 해당하므로 ‘k’로 적는다.	(1) ‘덕수궁’에서 ‘덕’의 ‘ㄱ’은 자음 앞에 해당하므로 ‘k’로 적는다.

※ 밑줄과 글자를 굵게 처리한 것은 필자가 임의로 한 것임.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어말(語末)’은 “단어의 끝”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덕수궁’이 한 단어라고 보면 ‘덕’에 쓰인 ‘ㄱ’은 ‘음절 말’은 될 수 있지만 ‘어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출제진은 교재의 해설에서 ‘어말’이라고 썼기 때문에 교재 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이다. 이 사례의 경우, 문항 자체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정답 해설 부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진이 상대적으로 주의를 적게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해설 내용 중 이런 오류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출제진이 ‘어말

(語末)’이라는 개념을 ‘음절 말’이나 ‘종성’ 등의 용어와 동일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거나 순간적으로 이러한 용어들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착각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오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내용까지 알아야 문항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예로 ‘동음이의어’에 대한 개념을 단순하게 생각하느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 의하면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는 “「명사」『언어』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 ≍동음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동음이의어를 표기가 같고 뜻이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배[舟]’, ‘배[服]’, ‘배[梨]’, ‘배(倍)’를 모두 동음이의어의 예로 제시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동음이의어를 좀 더 세분화하면 ‘완전 동음어’와 ‘부분 동음어(유사 동음어)’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무 예나 동음이의어로 제시하면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표준 발음에 의하면 ‘배[舟]’, ‘배[服]’, ‘배[梨]’는 단음으로 발음하고 ‘배(倍)’는 장음으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배[舟]’, ‘배[服]’, ‘배[梨]’라는 단어를 동음이의어의 예로 제시해야만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2.1.2. 출제진의 선행 지식 과신

어떠한 개념에 대해 오개념이 있거나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특정 개념어를 사용할 때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특정한 범주에 포함되는 예를 들거나 특정한 예의 단어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출제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올바른 예시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국어 교사가 타동사의 대표적인 예로 ‘먹다’를 들었다면 어떤 경우에는 오류가 될 수 있다. “옷에 줌이 먹었다.”라는 문장에 쓰인 ‘먹다’는 타동사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7년에, 파생어를 고르라는 문제에서 파생어의 예로 ‘돌배’라는 단어를 제시한 답지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구한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¹⁾ ‘돌-’이라는 접사의 의미와 이 접사가 쓰인 파생어의 예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파생어’라고는 했지만 혹시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래는 ‘돌-’과 ‘돌배’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정보를 옮긴 것이다.

‘돌-’에 대한 사전 정보	‘돌배’에 대한 사전 정보
돌-04 「접사」 ((동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품질이 떨어지는’ 또는 ‘야생으로 자라는’ 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❶ 돌배/돌감/돌조개.	돌-배01 「명사」 「1」 돌배나무의 열매. 「2」 『방언』 ‘돌배’의 방언(강원). 돌-배02[돌: -] 「명사」 돌로 만든 배.

만약에 출제진이 기존에 ‘돌-’이라는 접사가 쓰인 예로 ‘돌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는 ‘돌배’가 파생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파생어의 예로 ‘돌배’를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돌배’가 “돌로 만든 배”라고 명시돼 있지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이러한 뜻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사전 규모의 국어사전에서 일치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서 합성어인 ‘돌배’를 현재에 쓰이는 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시험의 출제 장면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이 많이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처럼 대사전 규모의 국어사전에서 동일한 형태의 표제어가 얼마나 더 있는지 등을 검색해 봐야 했다. 이는 출제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에

1) 이 문항은 2017년도 하반기 소방 공무원 시험에서 파생어의 예로 출제되었다가 문제 제기 끝에 ‘합성어’로도 쓰인다고 인정됐던 사례이다.

대한 과신으로 인해 출제 근거 자료를 더 찾아보지 않아서 생긴 문항 오류라고 생각한다. 국어 교사들은 사범 대학교 때 배운 문법 지식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데, 그러한 점검 과정이 없다면 이러한 오류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래 자료는 전국 단위로 시행했던 시험에서 실제로 오류가 나타나 복수 정답을 인정한 사례이다.

그림 2 2016학년도 3월 시행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영역, 12번 문항

12 밑줄 친 말 가운데 <보기>의 [A]의 사례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합성어의 품사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품사와 관계없이 새로운 품사가 되기도 하지만, [A]일차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했을 때 맨 끝 구성 성분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단어	직접 구성 성분 분석	단어의 품사
큰집	큰(형용사) + 집(명사)	명사
본받다	본(명사) + 받다(동사)	동사
:	:	:

* 직접 구성 성분: 어떤 언어 단위를 층위를 두고 분석할 때 일차적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성분.

- ① 입학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3학년이구나.
- ② 그는 농구는 몰라도 축구 실력만큼은
- ③ 아침에 늦잠이 들어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다.
- ④ 길을 가는데 낯선 사람이 알은척을 했다.
- ⑤ 하루빨리 여름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2016학년도 3월에 전국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영역 12번의 경우 당초에는 1번을 정답으로 제시했다가 3번도 답으로 보고 복수 정답을 인정한 사례이다. 출제진이 제시한 정답 해설에 따르면, “③ ‘늦잠’은 명사로, ‘늦-(형용사 어간)’과 ‘잠(명사)’ 중 나중 어근인 ‘잠’의 품사를 따른 것이다.”라고 제시하면서 오답인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아마도 출제진은 그 당시 문법 교과서 등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로 빈번하게 제시하던 ‘늦더위’를 떠올리고 ‘늦잠’도 당연히 합성어라고 생각하여 답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항이 출제된 후 모 대학 입시 학원의 강사가 12번 문항의 답지가 되려면 합성어이어야 하는데 ‘늦잠’은 파생어라고 지적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제시된 접사를 예로 들면서 ‘늦-’이 ‘늦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늦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명시돼 있어서 ‘늦잠’은 파생어라고 봐야 한다고 문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해 출제를 담당했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의를 받아들여서 기존에 공지했던 ①번 이외에도 ③번을 복수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이 경우도 출제진이 기존의 지식을 과신하여 ‘늦-’을 접사로 보고 파생어로 인식할 여지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학교 단위 시험의 경우, 출제에 참여하는 교사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2.1.3. 출제진의 불충분한 자료 검토

앞에서 살펴본 원인은 출제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과신하여서 여러 자료를 안 찾아봐서 오류가 생긴 것을 언급한 것이다. 여기서는 출제진이 출제 근거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충분히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검토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은 실제 오류로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의 신청이 꽤 들어왔었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출제진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서 문제시되었던 문항이다.

‘총무+과’는 ‘-’ 부호를 썼는지 안 썼는지에 따라 접사가 쓰인 단어인지, 어근이 쓰인 단어인지를 표시하는 등의 장치를 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서, 기존에 공지됐던 정답이 확정되었던 사례이다. 그런데 ‘총무과’가 국어사전에서 파생어로 처리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단어를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의 여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법 문항을 출제해야 하는 국어 교사들은 여러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일으키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출제진이 ‘총무과’를 합성어라고 생각한 이유를 추정해 보면, 일단 출제 근거 자료로서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해설 등을 충실히 보고 합성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희승 외(2010:125)에 있는 내용²⁾과 2018년 8월 1일 현재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이희승 외(2010:125)의 내용 일부	국립국어원 누리집 내용의 일부
《한글 맞춤법》에서는 합성 명사 중 적어도 한 명사가 순우리말 곧 고유어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적기로 한 것이다. 즉 ‘이과(理科), 치과(齒科), 총무과(總務課), 서무과(庶務課)’ 등은 고유어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와 (중략) 사이시옷을 적지 않기로 한 것이다.	⑥ 고-간(庫間), 세-방(貰房), 수-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회-수(回數)에서, ①~⑤는 모두 합성어이며, ⑥은 이에 준하는 한자어다. (중략) 이 설명에 따르면, ‘내과(內科), 이과(理科), 총무과(總務課), 장미과(薔薇科)’ 등은 3에서 다루어진 6개 이외의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으며,

위의 설명을 보면 ‘총무과’를 합성어로 보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모의 평가이지만 전국 단위의 시험이므로

2) 이희승 외(2015:12)에도 똑같은 설명이 나오는데, 당시 출제진이 검토했을 문헌은 이희승 외(2010)일 것으로 생각되어 이 문헌을 참고 문헌으로 제시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총무과’를 합성어로 보는 것과 관련한 정보를 검토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표제어 ‘과’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국어사전 정보의 일부이다.

과04(科) 「명사」 「1」 학과나 전문 분야를 구분하는 단위. 「2」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학과나 전문 분야를 나타내는 말. 「3」 『생물』생물 분류학상의 단위. 속(屬)의 위, 목(目)의 아래이다.	과10(課) 「명사」 「1」 업무 조직에서, 부서의 하나. 일반적으로 부(部)나 실(室)의 아래이다. ¶ 과 대항 체육 대회/우리과는 분위기가 좋다. 「2」 ((주로 순서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교과서나 강의록 따위에서 내용에 따라 차례로 구분하여 놓은 제목의 단위.
---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위의 내용이 있음을 확인한 출제진은 ‘총무과’를 합성어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사전 첫 페이지에는 나오지 않는 접사 ‘-과’가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확인했었다면 ‘총무과’를 합성어의 예로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는 접미사 ‘-과’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과14’에 대한 일반 정보	‘-과14’에 대한 상세 정보
-과14(課)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업무 부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과14(課)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업무 부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인사과/총무과. 「참고 어휘」과10(課).

위의 내용을 보면, 동일한 형태인 ‘과(課)’를 한 단어와 접사로 동시에 인정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

받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총무과’를 접사인 ‘-과’가 쓰인 예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무과’를 합성어의 예로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매우 모험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출제진에서 이런 저런 자료를 많이 찾아보았을 것인데,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해서 이의 신청을 받게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탐구형 문항으로 출제를 하고 접사로 보지 않는다는 장치를 하지 않았다면 오류를 인정할 수도 있었던 문항이라고 생각한다. 탐구 능력을 측정하는 지필 평가 문항의 출제 가능성을 보여 주었지만 하마터면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문항이었다.

2.2. 출제 근거 자료 측면의 오류 발생 원인

2.2.1. 출제 근거 자료 내용의 지속적 변화

국어 교사들이 출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국어사전, 각종 이론서, 교과서, 기출 문제 등 여러 가지겠지만 여기서는 현장 교사들이 출제에 많이 활용하는 국어사전에 대해서만 언급해 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에는 1999년에 종이 사전으로 발간된 후 시디(CD)로 보급된 적도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 사전으로 보급되면서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바뀐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바뀐 내용을 보면, 특정 단어의 띄어쓰기가 달라진 경우가 있고 뜻풀이가 달라진 경우도 있고 표제어가 아니었던 것이 새롭게 표제어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 등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접사 인정 여부나 용언의 활용 여부 등이 달라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출제 근거 자료가 계속 변화됨으로써 최신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을 때 교사들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는 ‘큰’과 ‘작은’이 접사로 인정되었다가 현재는 접사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인 것이다.

접사	1999년판 《표준국어대사전》의 수록 정보	2018년 현재 인터넷 사전의 수록 정보
큰	‘큰-’ 「접사」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말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큰고모/큰이모/큰동생. 「참고 어휘」 작은-02	※ 제시된 내용 없음
작은	‘작은-’ 「접사」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말이가 아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작은고모/작은이모/작은동생. 「참고 어휘」 큰	※ 제시된 내용 없음

국어 교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큰아버지’, ‘작은어머니’ 등을 파생어라고 가르쳤을 텐데, 지금은 ‘큰-’과 ‘작은-’이 더 이상 접두사로 인정되지 않아서 이러한 단어를 파생어라고 제시한 평가 문항을 낸다면 오류로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국어사전의 내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표준어가 아니었던 것이 표준어가 되는 상황도 있고 뜻풀이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지만 문법적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가 문항 출제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표제어 ‘말다’를 찾았을 때 제시된 내용이 달라진 경우를 보인 것이다.

1999년판 《표준국어대사전》의 수록 정보	2018년 현재 인터넷 사전의 수록 정보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하는 경우 ‘말아, 말아라’가 아닌 ‘마, 마라’가 된다. “가지 말아”는 “가지 마”로, “떠들지 말아라”는 “떠들지 마라”로 써야 옳다. 그렇지만 ‘-(으)라’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말라’가 된다. “늦게 다니지 말라고 말했다”의 ‘말라고’는 ‘말-+-(으)라고’의 구조이기 때문에 ‘마라고’가 되지 않는다.	명령형 어미 ‘-아’, ‘-아라’, ‘-아요’ 따위가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한다.

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예전(1999년)에는 ‘-아(라)’가 결합하는 경우 “가지 마.”, “떠들지 마라.”만 맞았지만 지금(2018년)은 “가지 마.”, “가지 말아.”,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말아라.” 모두가 맞는 표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일 때 어떤 어미가 쓰이고 활용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는데, 예전의 내용만 아는 출제진이라면 문항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2.2.2. 출제 근거 자료 간 내용의 불일치

동일한 출제 근거 자료가 발행된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 자료의 내용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문항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어느 정도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들 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특정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을 출제했을 때, 다른 자료의 내용을 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문항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서로 다른 국어사전을 근거로 해서 평가 문항을 출제했을 때, 오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든 예이다. 만약 천체로서의 ‘해’와 365일을 뜻하는 ‘해’를 다의어로 처리했다면 《표준국어대사전》의 관점에서는 오류 문항이 아니게 되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오류 문항이 되게 된다. 아래는 두 국어사전에 수록된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수록 정보
해01 [1] 「명사」 「1」 '태양02 「1」'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2」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해는 열두 달로, 양력으로는 365.25일 이고 음력으로는 354일이다. 「3」 날이 밝아서 어두워질 때까지의 동안. [II] 「의존명사」 ((주로 고유어 수 뒤에 쓰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을 세는 단위.	해1 1.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 2.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한 단위로 하여 세는 말 해2 1.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높은 열과 빛을 내는 항성 2. 날이 밝아서 어두울 때까지의 동안 3. 해에서 나오는 빛이나 열

위의 경우는 대사전 규모의 국어사전에 실린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 살핀 후에 출제를 하면 문항 오류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제 근거 자료 간의 차이는 국어사전 간 차이뿐만 아니라 이론서 간의 차이나 국어사전과 이론서 간의 차이, 심지어 검정 심사를 통과한 국어 교과서 간의 차이 등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반모음을 음소의 일종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책에서 불일치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데 매우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3. 평가 문항 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

2장에서는 출제진 측면과 출제 근거 자료 측면에서 교사들이 평가 문항 출제 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 문항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데, 문법 문항을 출제하는 국어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위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중학교 국어 교사의 경우에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지는 문법 영역의 내용을 꾸준히 접하면서 문법 평가 문항을 지속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문항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국어 교사의 경우 ‘국어’ 과목이나 ‘독서와 문법’ 과목처럼 문법과 관련된 과목이 아닌,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등의 과목을 여러 해 맡은 교사의 경우에는 문법 문항 출제 시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문법을 한동안 안 가르친 교사의 경우에는 문법 평가 문항을 출제하지 않은 동안에 국어사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문법 관련 이론서와 국어사전 간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그동안 출제된 문항 중 심각한 이의 신청을 받은 문항이 무엇인지, 실제 이의 신청 접수 후 오류를 인정하게 된 문항은 무엇인지 등을 일일이 점검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한 개인이 하기 힘들거나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여러 사람이 함께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국어 교사의 부담을 덜어 준다면 문항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문항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사항들을 몇 가지 제시하겠다.

첫째, 출제진의 오개념 및 출제진이 과신했던 내용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여러 국어 교사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례,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가르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론적으로 이러한 깊이 있는 내용이 있다고 알게 된 사례, 본인의 지식을 과신했다가 오류를 일으킬 뻔한 사례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예는 필자가 수능 연계 교재의 문항 출제 작업에 참여했을 때 출제한 문항인데 인쇄 전까지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인쇄 직전에 발견한 것이다.

교재 인쇄 전까지 오류가 인지되지 못했던 문항의 일부

〈보기 1〉 활동지의 ㉠, ㉡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의 예를 〈보기 2〉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1 〉

문장에 쓰인 단어의 형태가 같더라도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품사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 문장에 쓰인 ‘다른’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 안에 써 보자.

- 나와 그의 얼굴이 ㉠ 다른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 그는 자기 일 밖의 ㉡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 다른	㉡ 다른
기능상 차이	주어인 ‘얼굴이’에 대한 서술성을 지님.	체언인 ‘일’ 앞에서 체언을 꾸며 줌.
형식상 차이	다른 어미와 결합하여 형태 변화가 가능함.	형태 변화를 할 수 없음.
의미상 차이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의 품사는 ()이고 ㉡의 품사는 ()이다.		

〈 보 기 2 〉

- 내가 ㉢ 현 옷을 옷장 청소 때 모두 버렸다.
- 이 연고는 입안이 ㉣ 현 경우에 바르세요.
- 나는 놀기도 잘하는 ㉤ 그런 친구가 좋다.
- 회사 사정이 ㉥ 그런 걸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네요.

위 문항의 경우 동일한 형태가 형용사와 관형사로 쓰인 예를 찾아서 동일한 품사인 단어를 서로 묶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려는 문항이었다. 그런데 용언의 활용형 중에 관형사와 동일한 형태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은 나머지, 관형사를 일단 찾고 형태가 일치하는 용언의 활용형을 찾느라 정작 해당 용언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 그런데 필자의 선행 지식으로 ‘헐다’는 동작보다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당연히 형용사의 활용형으로 생각하고 <보기 2>에 ‘헌’이 쓰인 예문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교재 인쇄 직전에 ‘헐다’가 동사 아니냐는 편집자의 검토 의견을 받고 부랴부랴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헐다’가 동사임을 확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헌’이 들어간 문장을 ‘바른’이 들어간 문장으로 바꾼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례들이 많이 축적이 된다면 다른 국어 교사들에게는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둘째, 오류로 지적된 문항을 공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류로 지적된 문항은 실제로 오류를 인정한 사례, 오류라고 이의 제기를 많이 받은 사례, 오류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 시험지나 교재 인쇄 직전에 수정된 사례 등을 모두 망라해서 모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지난 2017년도 본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문항의 예이다.

그림 4 2017학년도 본수능 국어 영역 홀수형 12번 문항

12.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중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 음절의 중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 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중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 또한 음절의 중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중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몹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 [비웁]’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않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 읊고 [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위 문항의 경우 당초에 ⑤번을 정답으로 공지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①번도 답이 된다고 이의 신청을 했었고 현직 대학 교수까지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해서³⁾ 언론에도 소개가 되었고 국립국어원이 그동안 답변을 했던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일까지 생겼던 문항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존 정답을 확정된 사례이다.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을 담당했던 국어

3) 최경봉 외(2017:486)에서는 ‘맞히다’의 발음 도출 과정에 대해서, /ㅈ/와 /ㅎ/가 바로 결합하여 [ㅈ]가 된다고 보는 견해와 /맞히다/→/맏히다/→/마티다/→[마치다]와 같이 평파열음화, 격음화, 구개음화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최종 발음이 도출된다고 보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항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지만 중학교를 맡았거나 고등학교에서 다른 학년을 맡았던 교사들은 해당 문항과 관련하여 어떤 이의 신청이 있었는지조차 알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들을 추적하고 공유한다면 교사들의 문항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각종 출제 근거 자료의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공유하고 여러 자료 간에 상이한 내용 등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각 분기별로 사전의 내용이 바뀐 것을 누리집을 통해 공유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내용을 바뀐 시기별 파일을 따로 제시하지 말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바뀐 내용을 한 파일에 계속 축적하여 제시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국어사전이나 이론서나 학자마다 이견이 있는 것을 정리하여 공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작업을 잘하는 모임 중 하나는 직업을 위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모임이다. 아래의 예는 소단모(소방공무원 단기합격을 위한 모임, <https://cafe.naver.com/sdraft/92277>)라는 인터넷 모임에 올라 있는 글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그림 5 '소단모'에 실린 글의 일부

합성어와 파생어			
주요합성어	주요파생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가로막다	개떡	가로지르다	검붉다
감발	개살구	갈림길	검푸르다
개고기	개죽음	게울러빠지다	꽃감
건널목	구경꾼	그러모으다	곧세다
검붉다	군말	기차다	굶주리다
검푸르다	군식구	논밭	날뛰다
고추장	깍두기	늪은이	높푸르다
굶주리다	끝내	독갈다	엇밥
기와집	남자답다	빌려주다	독서
길짐승	낯추다	새언니	등산
김치찌개	넋이	손쉽다	뛰놀다
나가다	노리개	스며들다	부슬비
나뭇잎	놀이	안팎	불잡다
날짐승	늦더위	알아보다	여달다
논밭	늦잠	알서다	오르내리다
놀이터	대장장이	어린이	우짚다
높푸르다	덧가지	용쓰다	집값
늪은이	동감내기	작은형	척척박사
엇밥	드눅다	철들다	출랑새
돌다리	돌배	첫사랑	해맑다
돌보다	되문다	큰집	혈떡고개
돌아가(시)다	틀국화	힘들다	흔들바위

자료에서 늦더위처럼 색으로 표기한 것은 주의해야 할 합성어와 파생어입니다.

* 손톱깎이, 해돋이, 늦더위, 늦잠, 돌배 : 문법적 견해에 따라 합성어로 보기도 하고 파생어로 보기도 하는 단어

위의 내용을 보면 문법적 견해에 따라 합성어로 보기도 하고 파생어로 보기도 하는 단어라면서 ‘늦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자료에 따라 동일한 단어도 달리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정리해 둔 것을 공유한다면 국어 교사들이 문법 평가 문항 출제 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국어 교사들은 문항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평가가 실시된 후 이의 신청을 받거나 실제로 문항 오류를 인정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요즘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강사들이 단위 학교의 평가 문항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 교사들이 오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돕는 것은 문법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문법이 보급되어 여러 가지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학습의 근거로 활용된 많은 자료나 출제의 근거로 쓰이는 많은 자료들 간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학교 단위 시험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시험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오류가 생기는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문법 평가 문항이 오류 없이 출제되어야 문법 평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0), 《(증보)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5), 《개정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최경봉·김윤신·이동석·주세형(2017), 《국어 선생님을 위한 문법 교육론》, 창비교육.
- 구본관(2010), “문법 능력과 문법 평가 문항 개발의 방향”, 《국어교육학 연구》 제37집, 국어교육학회.
- 박형우(2011), “‘문법’ 영역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문법 교육》 제15호, 한국문법교육학회.

※ 평가 문항의 구체적인 출처 등은 생략